

곡성군, 민선8기 곡성형 혁신 워크숍 개최

이틀간 간부 공무원·실무팀장 80여명 대상 진행 곡성군 발전 방안 컨설팅·교육 접목 실효성 높여

곡성군이 지난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간부 공무원과 실무팀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민선 8기 곡성형 혁신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곡성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곡성군 민선 8기 군정 방침, 공약 사항, 곡성군 현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조사 및 분석해 교육 자료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곡성군 발전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접목해 워크숍의 실효성을 높였다.

각 강의는 서로 다루는 내용은 달랐으나 강의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주제는 '혁신과 협업'이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 군민 행정 수요 증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

인의 혁신 역량과 더불어 부서 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상철 군수의 의지가 반영됐다.

강사로 나선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은 '자치 행정과 지역 혁신,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 과제'를 주제로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권시대 자치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삼호 전 광산구청장도 '민선 7기 광산구의 행복시책 전략과 혁신 협업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한국도시경영 관리원 김경철 센터장과 덕성여대 박현용 교수가 군정방침별 혁신 방향, 데이터 기반 행정 등 곡성군 혁신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워크숍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민선 8기 군정 목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됐다. 가속화된 행정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꾀함은 물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곡성=양해영기자

장성군 "주정차 훌쩍제 거리에는 물건 쌓아놓지 마세요"

원활한 시행 노상적치물 이동 제도

장성군이 7월 28일 장성을 애플탑-쌈지공원 1.6km 구간 중앙로에서 주변 상가 등을 대상으로 인도 위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제도 및 홍보 활동을 벌였다.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는 주정차 훌쩍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날짜별도로 한쪽 구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주정차 훌쩍제'를 시행해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주정차 훌쩍제 구간 곳곳에는 LED 안내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들이 주정차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나 도로변에 각종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원활한 주정차 훌쩍제 운영이 어렵다. 특히, 적치물을 피해 무리해서 주차하려다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장성=김수권기자



화순새일센터, 양식 기능조리사 육성

1일 양식 기능조리사 과정 종강...수강생 3명 자격증 취득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화순새일센터)가 4개월간 운영한 양식 기능조리사 교육과정 수강생 3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화순군이 운영하는 화순새일센터는 1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양식 기능조리사 과정을 마치고 종강식을 열었다.

양식 기능조리사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수강생들은 광주 요리학원에서 실기시험 준비를 하고, 양식 레스토랑과 화순 지역 5개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기능조리사 역량을 높였다.

그 결과 수강생 14명 전원이 교육을 수

료했다. 이 중 93%인 13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3명은 양식 기능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합격자 1명은 관계기관에 조기 취업을 앞두고 있다.

수료생들은 취업동아리 '미르포아'를 결성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화순새일센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예정이다.

화순새일센터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교육훈련, 집단상담,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지역상권 빅데이터 분석결과 '매우 맑음'

구례군이 2022년 7월 26일 KB국민카드 빅데이터 솔루션 'DATAROOT'를 활용해 구례 지역 상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대비 유입인구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구례군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역축제를 취소하였고, 2020년 8월에는 삼진강 수해를 겪으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매출이 106억 원이나 감소하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2021년에 구례내투어, TV 예능프로그램, 유튜브, SNS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9년 대비 2021년 연간매출은 약 154억 원

(10%)이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관광객이 몰리는 산수유꽃(3월)과 벚꽃(4월) 개화시기를 살펴보면 축제를 추진했던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축제행사를 하지 않았던 2022년 관광객 소비가 약 78억 원(29%) 증가했으며 산수유, 벚꽃 개화기간에 전남 유입인구 소비 1위를 기록하는 등 구례에 대한 관심과 방문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진강 수해로 침수되었던 전통시장은 빠른 복구에 힘입어 2021년 연간매출이 2019년 대비 62%나 증가했고, 활기를 되찾아 올해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벼 주요병해충 적기에 방제하세요"

8월 15일까지 기본방제기간 운영

담양군은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어 벼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하여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8월 15일까지 '벼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농업인에게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제대상은 멸구류, 딱지벌레, 흑명나방,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이며 이들 병해충에 대해 발생초기에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집중 예찰 결과 잎도열병이 발생이 증가하고 이를 방치 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진전되어 피해가 예상되므로 벼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 비래해충(멸구류, 흑명나방) 등과 같이 방제해줄 것을 권했다.

담양=박종영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철저 당부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7월30일 제5호 태풍 '송다' 복상에 따른 시민 안전과 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배수펌프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7월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이날 송월동 배수펌프장을 찾아 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며 정전·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했다.

윤병태 시장은 "태풍,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재난재해대책본부 중심으로 배수펌프장 정상 가동을 비롯해 야산 산사태, 노후건축물, 건설현장, 과수농가 등 취약지역 예찰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시는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안전재난과(재대본)를 주축으로 △이재민 구호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공공·사유시설 응급 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에너지기능 복구 △재난대처·수습 홍보 △재난물자관리 △교통대책 △자원봉사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등 13개 분야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경찰서·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재대본 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분청 실·과·소, 20개 읍·면·동 인력이 비상 교대 근무에 임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